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흰 보좌 심판!(3)

- 읽을 말씀 계 20:1-10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대환난을 허용하시는 이유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천년왕국의 세 가지 견해 중 무천년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천년왕국

1) 천년왕국의 세 가지 설 중 어느 것이 옳은가?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입니다. 재림을 초점으로 전과 후라는 말을 써서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천 년’을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즉 지상에 천 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은 ‘천 년’을 주께서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기간을 상징한다고 보고,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적 기간으로 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옳은 견해일까요?

① 무천년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로이드 존스는 천년왕국을 교회시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천사가 용을 천 년 동안 무저갱에 가둔 것(계 20:1-3)이 12장의 미가엘이 용과 싸워 용을 하늘에서 끌어내린 사건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장의 남자아이가 예수님이고 십자가로 사탄을 무력화시켰으니 ‘초림’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12장에 일어난 하늘의 전쟁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그것도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이 광야로 도망친 후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5-8).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전쟁에 대한 구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습니다. 또 용이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 열방을 미혹했습니다. 또한, 12장에서는 용이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쫓겼습니다. 그러나 20장은 이미 땅에 있는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넣은 것으로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나아가서, 로이드 존스는 첫째 부활이 거듭남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첫째 부활(계 20:5)이라는 구절은 영적 부활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거듭남을 입은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궤변입니다. 왜 그렇게 단정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20장에서는 천 년 동안 용을 무저갱에 가둡니다. 같은 장 4절에는 예수님을 위해 목 베임 당한 자들과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서(살아나서)’ 라고 했습니다. 그 뒤 그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는 그 배경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육신에서 분리된 영혼을 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의 배경은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에는 각자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런 다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며 …”**(현대인의 성경, 고전 15:22-24)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가 부활합니다. 여기에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 외의 의인의 부활은 없으므로, 본문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 거듭남이 아니라 부활을 의미한다면 재림 때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통과설이 진리이므로 그리스도를 위해 목베임 당한 자들이 그때 부활한다고 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상재림 때 일어나는 휴거는 부활하거나 변화된 신자들이 하늘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장의 배경은 하늘이 아닙니다.

둘째로, 이들은 육신에서 분리된 영혼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살아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20:4). 로이드 존스는 “요한

은 예수의 증거로 인해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육체에서 분리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나타낸다.”라고 주장하며, ‘살아서’가 부활이 아니라 천국에 살아있다는 의미로 봅니다. 그러나 “살아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본들이 “살아나서”로 번역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살아서’ (4)와 ‘살지 못하더라’ (5)에서 ‘살지’가 같은 의미이므로, 천년 후에는 나머지 사람들도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살아서”와 “첫째 부활”을 거듭남으로 해석하면 천년 뒤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모든 죽은 자들이 거듭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12-14절의 행위심판에 대한 말씀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5)의 성취입니다. 이 구절은 거듭남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심판의 부활” (요 5:29) 혹은 바울이 말한 “악인의 부활” (행 24:15)입니다. 이 부활에 빚대서 먼저 일어나는 믿는 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은 실제로 부활을 뜻하며 거듭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8-29절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재림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는 부활이 아니라 거듭남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날까요? 재림 때 “택하신 자들”만 부활하여 휴거합니다(마 24:30-31). 이때 악인들은 부활하지 않고, 천년왕국 후에 부활합니다(계 20:5).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축약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20장은 그것을 자세히 펼쳐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생명 얻는 자들의 부활이 나오고, 심판을 위한 부활은 따로 나옵니다. 그 사이에 무려 천 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의 진전이지 모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제시한 구절을 통해 축약해서 제시한 구절을 이해해야 하며 후자를 통해 전자를 부정하거나 그 의미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살아서”나 “첫째 부활”이 거듭남을 뜻하지 않는다는 증거 두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20장 4절에 기록된 사람들은 대환난 때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순교한 자들입니다. 교회시대의 모든 기간이 아니라 대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나오는 천 년은 명백히 대환난 이후이기 때문에 천 년이 대환난 이전의 교회시대를 뜻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절의 뒷부분에 “**그들이** …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천년설의 주장대로라면 천 년은 교회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대환난 때 순교한 자들이 교회시대 내내 왕 노릇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뜻하는 대환난 때 순교한 자들(교회 시대 끝에 나타날 자들)이 어떻게 “천 년 동안” 즉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인 교회 시대 내내 왕 노릇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모순입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십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16-19). 무천년설이 맞고 천년왕국이 없다면 어떻게 재림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텐데 말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일이므로, 무천년설은 진리가 아닙니다.

● 나눔과 적용

부활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 의인들의 생명의 부활과 악인들의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여 바른 진리를 깨닫고 사람의 계명이 아닌 생명의 길로 돌이켰던 경험들을 나누어 봅시다.